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	**보도자료**	희망의 새시대 http//www.motie.go.kr
2014년 8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문의 :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장대교 과장(044-203-5720), 이응대 사무관(5721)		

정부, 오만 신흥시장 진출 바람 일으킨다!

- 300억불 시장진출을 위한 경협위 및 수주상담회 개최(8.24, 무스카트)

★ 에너지, 플랜트, 건설, 의료, 방산, 신재생에너지, 금융 등에서 진출확대 기대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8. 23. ~ 24. 일정으로 중동의 신흥 시장인 오만과의 협력 수위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, 문재도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0여명의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.

○ 오만은 '15년까지 제8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약 300억불 규모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,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, 아시아와의 협력방안을 찾고 있다.

○ 정부는 오만의 석유화학, 철도건설,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확대가 우리기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간 경제협력위와 기업간 1:1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.

□ (총괄) 오만 방문 주요성과

○ 먼저 양국간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에너지, 플랜트 건설 등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며, 특히 국가철도망(100억불) 및 두쿰 정유공장(60억불)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.

○ 또한, 양국간 협력범위를 신재생에너지, 방산, 의료, 금융 등으로 확대하였으며, 특히 우리 국책사업인 동북아오일허브에 오만 참여, ESS(에너지저장시스템), 신재생에너지 협력, 오만 국부펀드 활용한 제3국 진출 등은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.

○ 오만도 포스트 오일(Post-Oil) 시대에 대비하여 당면 과제인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적극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(MOU)를 맺고, 앞으로 오만 비용으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,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:1 수주상담회 에서 의료, 건설, 기계 등 분야에서 41건 총 21.5억불의 수주상담이 이루어졌으며, 향후 기업간 교차방문을 하면서 추가 협상하기로했다.

□ (상세) 제4차 한-오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(8.24. 무스카트)

○ 문 차관은 300억불 국가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오만과 협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8.24(일) 오만 정부대표단(알 히나이 재무부장관 고문을 비롯한 16개 부처 참여)과 '제4차 한-오만 경제협력위'를 개최하였으며, 세부 협력방안을 찾아냈다.

※ 주요 협력분야 : 무역투자, 에너지자원, 철도·건설, 항공, 해운, 방산, 보건, 금융, 기술표준, ICT, 중소기업 등 11개 분야

○ 먼저 한국은 플랜트건설 기술과 오만의 자본을 결합하여 중동, 아프리카 등 신흥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오만측에 제안하였고,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.

○ 오만은 우리나라 LNG 수입량의 약 11%를 담당하는 제3위 공급국으로, 석유·가스 등 에너지 관련 플랜트 건설과 원유·LPG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.

- 특히, 문 차관은 우리 국책사업인 '동북아오일허브 사업'에 오만 석유공사(OOC)의 참여와 ESS(에너지저장시스템) 협력,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 제안하였으며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.

○ 철도와 건설 분야에서는 오만 최초의 국가철도망 프로젝트(2,244km)에 대한 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(3억불) 및 철도건설 본공사(100억불)

에서 한국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.

○ 의료・보건 분야에서도 무스카트 메디컬시티(10억 불) 등 신축병원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,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양국 담당 부처간 협력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.

○ 금융 분야에서는 오만의 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오만 자본시장청간 금융 정책과 감독기능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(MOU)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.

○ 한편, 오만측은 포스트 오일(Post-Oil)시대를 대비한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한국의 지원을 적극 요청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오만 중소기업개발청간 협력 양해각서(MOU)를 맺었다.

- 이에 따라,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만정부의 비용지원에 맞추어,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오만 중소기업 관계자(연간 20명 수준)를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그간 경험을 적극 전수하기로 했다.

□ (상세) 제1회 한국-오만 비즈니스 포럼 개최.(8.24, 무스카트)

○ 이번 오만과 경제협력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차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상공회의소와 코트라(KOTRA) 주관으로 비즈니스 포럼 및 1:1 수주 상담회를 열었다.

- 한국은 오만측 참석기업들에게 '한-오만 신・재생에너지 협력 방안', '한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'을 제시하였으며, 아울러 오만측이 추진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했다.

- 특히, 1:1 수주상담회에서는 보건, 기계, 건설 등 분야에서 열띤 수주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총 41건, 21.5억불 규모의 상담을 진행

하였고 향후 기업간 교차방문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.

□ 주요 정부인사 면담

○ 문 차관은 금번 방문기간 오우피 석유가스부 차관, 노아미 교통통신부 차관 등 주요 인사와 별도로 면담하면서 한-오만간 에너지협력 강화 및 철도건설 수주지원을 적극 요청하였으며,

○ 특히, 우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'동북아 오일허브사업'에 오만 석유공사의 참여를 요청하였고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탈 석유시대를 대비한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,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 한국은 독자적인 고속철 기술을 보유한 철도강국인 바, 오만이 추진 중인 철도망(2,244km, 100억불) 건설에 우리기업 수주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철도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실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.

□ 문차관은 "이번 방문은 올해가 한-오만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로 오만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단이 방문하게 되었으며, 양국 정부의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주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"라고 오만과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

○ "중동·아프리카 타 신흥국가와도 한국의 발전경험 및 우수한 기술과 그들 국가의 개발 잠재력을 결합하여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양자간 통상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[붙임]

<참고자료> 오만 유망 프로젝트 추진 현황 1부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장대교 과장(☎ 044-203-5720), 이응대 사무관(☎ 044-203-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첨부>

오만 유망 프로젝트 추진 현황

□ 석유화학 프로젝트 분야

프로젝트	규모	발주시기
라스마르카스 원유저장소 건설	30억불	2014.4분기
두쿰 정유공장 건설	60억불	2015.1분기
Liwa 플라스틱 공장	36억불	2015년
소하르 PTA공장 *Purified Terephthalic Acid (고순도 테레프탈산)	10억불	2015.1분기

□ 건설 프로젝트 분야

프로젝트	규모	발주시기
오만 최초 철도건설(2,244km)	설계감리 (3억불)	입찰 중
	EPC 공사 (100억불)	입찰 중
무산담 도로 프로젝트	10억불	2014년말
사나우-두쿰 도로건설	1.3억불	2014년말 결과발표 예정
아담-투믈렛 도로건설	3억불	2014년말 결과발표 예정
미르밧 해상기지 건설	3.5억불	2014년말